

◇우리교회의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이다

(사 12:1)

총 현

THE CHUNGHEON TIMES

1972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환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8

대한 세우고 장로회
총 현 고 회
(52) 4427-9738

(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
나의 머리 안에
내 이해하는 곳에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 안에
내 얼굴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 안에
내 말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과 헤어지는 그 날에
내 속에 살아 주십시오.

—『기독교 영성선』에서



□ 설 교 □

하나님의 사랑

김 창 인 목 사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의 무르짖는 장아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라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 새끼가 위에 머물거려 그 날개들로서 새끼를 일으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을 인도하셨고 힘겨운 다름없이 이르도다"(전 32장10-1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하신 역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다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지체가 있어 영구가 있고 영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생명을 영구로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고 지체로운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체입니다. 자기를 지조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행할 줄 모르시며 알지 못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의 지체적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를 낳아 주시고 생명의 주신 무모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지체와 영이 유한하고 허약하기 무한한 양식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여 주신 영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설명기 32:10-14에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광무지

로 짐승이 무르짖는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가혹하고 괴악의 유혹이 짙고 악한 짐승의 침략과 악마의 침략이 계속 습격하여 오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심히 약합니다. 누가 우리를 할 사람으로 할 능력이요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잡히라고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사람의 지체 중 가장 약한 것이 눈동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보호를 잘 받고 있는 것은 눈동자입니다.

주눈을, 눈동자요 귀부의 신기를 이음으로 작고 민감한 눈동자는 자중적으로 움직이지며 눈동자를 보호하여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고도 눈동자를 잃는 약으로 가서 눈을 보호하여 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물은 감히 누구도 손 못 대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지 존엄시키십니다. 인간의 심원 행복은 올바른 존엄을 받아 자활능력을 가지고 만민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데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 왕입니다. 그 이유는 새가 새부터 먹어서 존엄을 받는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날개에 의해 일을 짓고 만민이 새의 존엄은 높은 공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귀를 넘기는 존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가 백성을 쓰시기 위하여 백성 존엄을 지켜십니다. 영성과 자비의 영성이며 보호는 조화와 조화 안에 계시되고 존엄시키십니다. 이것은 영성과 조화와 조화

고 무성고 덕을합니다. 이 때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되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인악하고 인악하게 하고 이 고생 대학을 잘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고 존엄을 받아야겠습니다.

세째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물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생물의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먹은 것 못 먹고 주운 날 입을 못이 없고 거칠한 것이 없다면 천하나 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생물을 주십니다. 질서에 따라 살고 자라는 물기와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을 잘 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지조하고 악하고 지조 불행하게 할 때에 비로소 비로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자하고 손이 오자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치지 않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이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하여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만 것이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악한 지체와 영수들이 능동적인 장아로 자라 말로 능동자같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존엄시키시기에 모든 생물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감화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회장)

당회는 당회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그리고도 당신 안에 일 때까지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스틴.



우리 교회의 신앙노선

백 성 불 목 사

말 뒤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하시오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관하여 위증하신 신앙의 자유와 그의 선입의 자유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이 조직된 유물교회는 민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신앙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성격이 구체된다. 이 구체적인 교회 성격이란 명문화된 신앙고백과 신조와 정치원리에서 비롯되며 대외교회의 전통과 관례와 성도를 포함한 신앙운동이며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노선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교회의 신앙 노선을 말할 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세칭 합동측에 속한 교회로서 명문화된 신앙고백이나 신조에 대한 말은 흔히 헌법적 있는 그대로이기 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그 신앙고백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절정의 은 중원교회적 특수한 성격을 함양 으로서 신앙노선이 무엇임을 말하고자 한다.

1. 중원교회는 대교회주의 표방의 교회는 아니다

중원교회를 가리켜 흔히 대교회주의 표방의 교회라고 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로 일어 보다는 단순한 마을가림의 신앙들이 모여다 보니 오늘날 중원이 된 것뿐이다. 금년 19회를 맞이하는 중원이 설립 초기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할 때에 그의 부흥에 비례하여 모든 규모가 확대될 것임이여 이점상으로 말하긴 것은 없다. 더욱 구체적으로 대교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대교회가 되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지도자 문제다. 어느 교회든지 지도자의 신망이 그 교회의 성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날 중원교회는 이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김 봉년 목사님의 열정과 지도력에 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지도에게 말하자면 중원교회는 목회자의 목회신앙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알아 돌리고 거주적인 지도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다량한 일이다.

둘째는 그의 관에서의 사랑의 결속이다. 신앙고백은 같다 하더라도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주기도 다를 수 있으며 또한 같은 교회에 위해질이 있어 권리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 신앙자들은 크게 위축을 받는다. 또한 그것들은 항상 본성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은 교회들은 특별히 서로 중립한 것을 노력하여 본성을 피하도록 선포하는 데서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목회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성과 순종성의 지극과 아울러 교인들

간에 서로 아끼주는 사람이 중원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비중원이 되게 한 요인이 되었다.

2. 거역대로 믿자는 전통을 세워 나아가는 교회다

교회마다 장로라는 말이 자기 말이 있는 법이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중원 지키는 지경을 길러 지키고 혹은 이 방면에 치중하면 저 방면에는 소홀히 하는 것은 신앙적인 한계 안에서 서로 용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을 초월해서까지 그지않을 떠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그렇게 하는 데는 하악 일로 전라 한성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원교회는 열렬하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 준 전통 있는 교회다.

20년 전사제 전통이 무슨 전통이라고 안문할는지 모르나 이미 발한 대로 이 교회의 성격 형성이 목회자의 신앙신앙과 목회 신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중원교회는 한교사들의 지를 따르자는 거동이 힘이 보이며 이미 그 전통을 세운 교회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신앙신앙을 안고 있고 북한 공산 치하에서는 주일성수를 위하여 선거를 인정하면 그분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중원교회를 그 신앙노선으로 이관고 있으며 우리 교회개혁 당시 주일에 화해교회를 거부한 일은 가장 좋은 실례의 하나다.

3. 피열적인 교권주의를 경계한다

거역하면 교회화면 합동측이던 과잉적인 정치 세력은 가담의 본질이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거나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치활동이든 신념상 중원이 부패하지 않으면 참여하게 한다는 것 뿐이다. 언론하고 소원하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권리며 어느 것이 보라 더 신념상 중원이 되었느냐 하는 판가름에 있는 것이다.

이같이 함으로써 암묵적으로든 매우 고립된 입장을 받고 있지만 신앙적인 단독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않다. 전라 전에 전 사람은 누구나 동지대로 모르게 왔던 것이다. 과잉적이며 과격적인 정치행동을 배격하나 그렇지 않은 편에서는 지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원교회는 어떤 정치이념을 추구하려고하는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커서를 잡고 나간다. 교회의 전제 신앙운동으로 보나 내 서는 전통으로 보나 대외적인 접촉에서 보나 중원교회 신앙노선은 어디까지나 순교정신에 입각한 순수신앙에 있다고 본다.

(부록사)



무엇을 하는가

—교회기관 소개—

김 재 창 목사

1. 담 회

교회 정기문답대회 194문에 달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일은 물론에 「담회는 본 지교회와 위임목사와 위임 장로들로서 조직하느니라」고 담하고 있다(우리의 헌법 헌법에는 담회는 지교회목사와 지회장으로 조직하여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행 14:24, 롬 1:5)로 되어 있다). 지교회의 최고 지령 기관으로서의 담회는 위임목사를 회장으로 지리 장로들은 회원으로 하여 장로의 선교회, 장로회의 8개조를 승인하고 헌법과 그 헌법적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순찰
- (2) 교인의 일치와 화해를 권리
- (3) 세례와 성례를 거행
- (4) 장로와 집사 임직을 주관
- (5) 자할 직을 수납과 저축하는 일을 주관
- (6) 헌경하는 안을 주관
- (7) 성령적 육체를 포모하여 자기관을 감독
- (8) 노쇠에 충비를 제공하여 청년과 보고를 한다.

위와 같은 직무를 보다 효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다(헌법 제20장 1, 2조 에 의거).

2. 제 직 회

전통한 교의 전파와 제정권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담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담회, 서기관으로 조직한다. 성회 회회와 7개의 자정행부인 안수부, 전도부, 구제부, 미화부, 청년부, 세전부, 봉사부를 주는 한편 제정위원회를 상비부로 하여서 각부의 결산비와 사업비 등을 지출하며 각부는 소관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헌의하여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말마다 공회회의(서기관

인 전원이 회원이 된)에서 지난 해의 결산보고와 다가오는 세대의 예산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는 장부의 장사를 맡는다.

3. 주 일 학 교

전국 일교를 이루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주일학교가 있으며 교육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있고 10개부(신학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적로자랑선부)로 나누어진 각각 학급들을 이이 다면전 교과목에 의하여 성경교리를 교육하여 신앙훈련을 위한 헌구, 제회, 순경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4. 전 도 회

장로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전교회와 서전교회가 지명한 조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파송하여 전도회회를 하며, 국외 전도사업

을 위하여 해외부흥선교회가 있어 선교사를 선발 훈련하고 선교지를 선택하여 파송하여 선교사업을 총괄함으로써 적극 지원하고 있다.

5. 구역권찰회

각 구역별로 선도의 가정을 심방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이러한 가정들을 구제하며 좋은 가정을 위로하고 저조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지 하도록 독려하여 신자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비단 전인의 불성회를 거치고 세도를 알리는 보고와 세도반면을 위한 행위를 한다.

6. 성 가 부

작금 세대를 더욱 은혜롭게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각종 성가대를 육성하여 순경하고 헌의한다.

그 외에도 교회 실무를 위한 전속위원회의 조직을 관리하는 중앙 권회위원회가 있어 각각 그 소임에 충성하고 있다. (부록사)

교회 등록 안내

등록카드를 안내하시는 교역자나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시고 그것에 가족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뒷면에 자기 집의 창도를 큰 직경을 중심하여 그려서 그런 후 등록자가 직접날인 하셔서 안내하시는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교역자는 이것을 회당구역 원장에게 전하여 그 등록하신 분의 집을 찾아 확인하고 헌일이 날인하고 이것을 구역장에게 전하여 구역 구역장은 전산의 실방결과를 듣고 결재하여 해당 교역자 목사에게 전하여 주며 목사는 이에 결재하여 그날의 비서에게(등록자가 출석하시는 비서) 이를 사서까지 하서금 효행하여 일러서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등록은 이것으로 끝나고 그 주간에 해당 교역자가 등록하신 이의 가정집 처음으로 심방하여 가정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한 후 등록카드를 사무실에 전하면 사무실에서 교역자카드, 심방카드, 구역카드를 작성(구역카드는 교역자에 붙임)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완전히 본 교회의 교회를 가진 교인이 됩니다.

□ 수 월 □

지 각 생

이 준 교 목사

저는 주일 아침이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날이었다. 보아, 비스 안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니, 9시 5분 경이었다. 고사리는 9시 정각부터 피다. 돌집들이 피자를 하고 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만 이십분이 지나었다. 나는 자신의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지난 6년동안의 직장생활에서 한 한일도 시간에 늦어서 피자를 하여 온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쉽게도 피자를 못하고 가는 한이 있었으므로 피자는 하지 아니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온갖 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한다. 또 침소모는 중할 "내가 세상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노라"고 그러기도 한다.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 아랫나 재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천대 영동주의 성회학자들론 천만의 영동원리를 세속 만물의 성회

으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광화 또는 보살이라고 한다. 광화 가운데 가장 일면적이므로 가장 완벽한 일행력을 주는 것을 은이라고 한다. 적절정점에서 피자; 광화가 없는 것은 실용적인 요건도 있지만 이를 광화라 원리해 따르면 만일 이러한 피자이나 광화가 없아지르면 보살은 적어지고 만년에 사망자를 내야 하고 집이 쓰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경제(무차별화)를 받아야 하게 되므로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고의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는 어떠한 광화가 머나 은만 행인가? 아니 아무런 보살이 없는 것일까? 고의를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자살해하는 죽음이고, 정공이라고 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슬라우실 보살을 얻지 못할 것을 짐작한다. 장자 주님 앞에 가서 보살도 갖 수 없는 한 상상을 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직장에서는

서자를 알라는데 교회에는 피자를 하지 되지 않더라. 침소로 이상한 일이다. 어느 부도 선생님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직장인(그 분은 교사님이었어)의 생활이란 침소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침소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까지 책이 아니라 보면 말할 수 없이 지치고 머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야 충실 다닐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고 쓰여야 하는 것이라서 지각하기가 심중 일구라는 것입니다.

이런면 대 생각과도 꼭 같은 말이 많이 침소로 남음이 있는 것 같다. 침소로 머근다는 천이므로 육신이 약한 내가 많이 쓰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명(?) 가치고 그해로 다 못할 수 있으리라하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직장에는 피자를 알라는데 교회에는 피자를 하는 나 자신을 다스린다고 본다. (고등부 교사)

전전한 기독교 교육이란?

백 선 주

근대 기독교교육이란 문제무종과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보기는 아담 루터를 들 수 있다. 루터는 교회의 절대성을 성경의 권위로 했으며, 구원을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에 있다고 했다.

중세 이전에는 기독교교육이 있었으나 그 교육은 세례의식을 통한 교육이거나 아니면 집중적 교리를 익히는 중요시했다. 기독교교육의 발달 음악과에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라 할 수 있겠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목숨에 전하여 그의 성품이 그의 스모의 성품과 합하여 보리나 것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오래 교회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인으로 양성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성경을 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근대 기독교교육은 전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초기에 교회와 방언에 중점을 두는 것을 학생 중심 주 교육자의 성취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아동을 교육시키고 인본주의 교육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전자는 전통에서 일찍이 과거의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데 반해 저급에는 아 중등으로 경원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였다. 즉 이를 자신이 원동에 참여하여 받은 한 경험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여건을 창조해 줄으로써 경제성보다는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을 자신이 주체와 이상을 향하여 사고 하고 선택하도록 해 준다.

그러하여 교육은 적에게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머무르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당성부 제1기성)

□ 바랍직한 교회 □

□ 기독 청년들에게 □

복음전도적 교회

주님 쓰심에 합당한 일꾼

이 을 표 전도사

이 등 규 장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의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네 사마리아 사람들 보낼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다. 이리하여 주님은 그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그 지상(至上)의 과업인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배려, 성경공부, 기도, 헌금, 봉사 선교를 다스려야 할 법이다. 이러한 교회적 사명이 실현되도록 모든 것 이행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복음전도적 교회일 뿐이다. 신약성서의 교회들은 활발한 복음전도적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아버지 그 지역적 전도를 복음화하려고 힘쓴 노력을 바쳤다(행 11:20). 그들은 이교회의 일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수제자를 구원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소아시아로 파송해서 그 외 많은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다.

복음전도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다. "너희는 복음전도와 온 온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도하라"하신 것이다. 예수상행교회는 하루에 3일마다 온 온도를 한 교회였다. 그들은 이 열심에 복음전도에 노력하여 "달마다 그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했던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물결에 주님을 믿는 자를 주수하는 일꾼같이 열심히 일했다. 예수상행교회가 열심을 발했을 때 교인들은 줄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줄어든 것만 모든 소도시와 대도시에서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던 것이다.

복음전도를 열거한 교회는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으므로 교회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그 교회가 복음전도적이라면 저하한 것이다. 좋은 위치는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전도해 줄 것을 받은 교회는 열렬한 경향을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모야양영부 저)

신앙감정의 노력이 심하면, 노력이 심한 여인들처럼 전파해 버리고 만다.

믿음의 뿌리에서 사람도 소망도 생긴다. 어떤 제법보다 확실한 것은 성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최상의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과 화성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시다. 지구는 곳곳에서 불타고 인간들은 죄악과 생사의 불마루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30억을 헤아리는 인구가 정화를 이루어라고 세계정화에 목이 마르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온 세계가 거울되고 있습니다. 지체는 갈대밭들이 정화라는 주기를 가져오고 세계 정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화이라는 주기가 세계 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위에 참 평화를 수신 받은 다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온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받들고 무릎잡은 성령의 열매에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애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오직의 무어적 거리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서 표현을 말하는 것이 극단 말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이 복음을 잃어 버리고 지키지 않는 생각을 가져오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 보며 믿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말하하면 내 성격을 하나님 뜻에 위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 뜻대로 문어치고자 하고 만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맡당한 일꾼이 되려면 그의 받은 일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욕망과 이상과 목적을 자기 계획에 부쳐 말고 먼저 자기의 무리를 사랑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바울과 같이 지체적 열심에 의한 깊은 심자까지 성령들이 되어서 동감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막이 선을 잡으고 하(下)가 상(上)을 극복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실패로 극복하야 꼭 세상이나 이 모든 문화와 사회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말씀은 능력 이시며 어느 학문보다 뛰어나고 영적의 지체의 근본이며 말씀은 결코 결과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기도로 무장합시다. 기도는 능력이시며 만가지 학문보다 강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세속의 무기로 기도는 강한 능력입니다. 우리 다같이 항상 말씀을 읽고하여 성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교회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고 기독교인간의 사명 달성을 위한 데에 앞장서서 주님의 영광 열심을 증진합니다.

(정영부 부장)

성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법

성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목적에 의하여 읽어야 한다.

①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요5:39).

②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읽어야 한다(골3:2).

③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요17:17).

④ 영적 힘을 얻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사4:12).

이상 몇 가지를 연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 목적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의 다음 몇 가지를 특히 주의하여 읽도록 하자.

①저를 읽고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만족해야 할 모형을 무엇인가?

②내가 만족해야 할 열정은 있는가?

③어떤 죄를 피하여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④내가 하나님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의 조건은 무엇인가?

⑤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세로운 말들은 있는가?

종이 장(章) 절(節)에서 고은 대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대로 행하려는 것치고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복종하고 그 지시대로 행할지라도 해야 한다. 또한 읽을 때에는 중독과 아울러 정복도 같이 읽이 좋다. 정복이라 함은 세운다고 하는 말이다.

즉각 말씀의 자를 피쳐, 자문암의 책다른 지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치며 특히 문맥, 배경에 주의하여 세운 것치고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읽어야 한다.

<수 필>

사 랑

박 선 회

○○아!

영광에 너는 내게 들어올게.

영광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면 좋은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지금 말해 줄까.

예수여, 이스라엘 나라의, 랍 율 율로사가 예수님께 물었다.

"성경님,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중에 어느 지명의 가장 좋습니까? 또, 제가 무엇을 하여야 성결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영광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산 6:5).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8)인 것이다. 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하시는 모든 뜻이다. 또,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 22:34~40, 마 12:28~34, 마 10:25~28에서 읽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아지고 자람을 하여 행복을 볼까.

하는 큰 열 생각. 영생의 열매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같이나 손이나 들어나 나무나—를 갖고 성서의 모습, 남이나 여자의 모양을 조각하여 갖고, 그것들에서 의미를 속이게 읽어야 한다. 우리와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열매를 맺도록.

"아이유, 하나님 말씀" — 어떤 말씀을 하도 말하지 않다가 한다. 우리의 지혜나 세속적인 지식을 알수로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수로 알 지혜 낼 수 있는가 우리의 큰 뜻을 다하여 힘을 잘 써라.

6월 문장은 성서의 공부하고 열라고 다스리고……하나 영적일 때는 우리 영적 지식 손님이라고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우리게 하신 날이나 우리 큰 힘을 다하여 기록히 써라.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는 아버지님과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나 형제들 사랑히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나(요일 4:20).

은 몇 큰 계명에 설하되다 더 큰 공한 사랑의 성경을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 마음 세키는 비로, 남이 읽어하는 일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공헌을 아무도 모르는 슬퍼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거짓말을 듣거나 지어내서 이웃에게 속여먹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잘 먹고 살구나—하고 이웃의 소수함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를 나는 이렇게 알았수 있가. 사랑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하나? 하나님의 열매로 세운을 만든 사랑(산 1:28)에 중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알라 하되온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열매함으로써 하라(요일 3:18). (유년부 교서)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

하빈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접이 거룩한 작업에 헌신하는 중년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970년 9월 25일 제55회 제헌에
수교장교로 승진에서 인도네시아의
승진교사로 임명된 후, 1971년 9월
9일에 고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98일간의 인도봉역을 하고 1971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
르타에 도착하였습니다.

거주 여파 일체의 교회들은 15일
전에 정지된 순회위원회 우리 교회
의 관할이 정지되어 있는 순회위원
을 순회 위원회의 토와가·마마
사기독교회를 발송하임입니다. 또
한 국가교장회의를 찾아 인사발
문위원의 자격사노의 순회, 마마사
노회 위원, 토와가·마마사기독교
위원의 정지된 자격을 반환합니다.

이 지역은 해발 1,200m의 고원
앞배에서 바타리아포지 를 축짓는

간증이 전제로서 서식하여 보편화 된
원을 구비 이론의 성립형식은 논이
부족하고, '상승'이라는 부어로 주
석을 삼습니다. 수의 대신 순차적
을 사용함과 전조가 없어 순조유려
의 관통을 즐깁니다. '사중'이라는 형
식 없는 부어와 같은 좋은 이화적
의미상의 조우한 것임니다.

악마죽고난 살라 고백하는 복자 29명, 전도자 35명이 자포하고 있으며 대의 한지는 구라와자이고 골속 결리는 주일 하신대비 할 만연이요 한글은 곡직이노 카리모 하신 하에 비록 주정대비 죄의 치리됩니다. 비록말 망식대시 십자가는 붙 수가 없고 함적으로 붙인 십자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합사원광회 실행조며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복사들도 가르친 설교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교부의 저의 사색은 당초
예외하였던 신학교 교수는 불가리

제 1차년도 교의를 순회하여 집회를 인도하는 데 전력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지역은 줄미외리읍을 중심으로 해서 20리구, 만다시유지구, 팔로읍 지구의 6개 노회, 30개 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1반 3,666㎡ 산을 넘어 630km의 거리로 팔로읍과 칠곡을 가야 하며, 완전 중간정리 가 꼭 필요합니다.

고양 산하 옥사 26명 전원을 만나보고 비자과 출신인 1884년의 고교회를 방문 후, 각교회의 주부의 모욕에 의한 심정표를 작성하여도 전국도 시작되었다 합니다. 성교회장에 필요한 것은 구별보다는 조종수단으로 철사 1대, 말 3필, 구별의 2대 술의권력 2대, 장화 2켤, 천천지를 원동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몇 사람이 속하
여서 보고 이 좋은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질 구조.

1972-74 24 229

선교사 서마수

형식은 알았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다.**

陳登之 詞

했습니다. 취미는 낚시와 배
낚시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듣
는 학생이 내릴줄이나, 아가씨가
물라춤을, 그 뒤를 한 걸음 앞
뒤가 열려서 뛰어들 물라춤이며,
꼭꼭하고 3,4학년 정도까 사내
아이입니다. 여성에 나오는 화
가 아가씨의 슬픔을 아랑곳없이
그림을 그려서 속이 아픈 것입니다.

장독대의 이름이 없이 아
라 일필의가 머죽이 보석은 죽을
전하고 몸이 무슨 석같이있는
죽장조와 자기 집안 고부인을
살고 있음이라, 미즈가 죽을
때마다 보석 죽을 죽일수있되니
만 구름같이수 있는 손을 모으고
집집 조르는 죽일때 죽을
한

한국의 물과 지구 환경 문제
 연구는 수문을 시작합니다. 물의
 고의 흐름은 변형되어 있어 지
 구과학입니다. 물의 고의 흐름

표현됩니다.

코 앞에 걸려진 손가락 위에 나는 저마 한알의 돌연술 걸기
은하늘을 수가 없었음이라, 한알
돌연술로 이 사내마녀에 대한 나
의 적의를 속여주는 더구나도 나
자신의 편견스럽게 느껴질거
려 합니다.

당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
해의 지역적인 부유가치에도
불구하고는 당원들은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서를 보물처럼
삼아두고, 관망할 당원들의
아름다운 물아오르기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영그리 회를 세할 령을 본
아가는 하네의 다른 것을 알다가
는 저절로 잊었됩니다. 삼포가
미니로 격리된 것의 못되서야 되
겠느냐고 원정에서 피부를 지
미의 왔습니다. 그와 하네는
고성하는 단점을 따라 오는 부끄

型 号 號

발 수 없이 거절하였을지다.

미국의 최선 방편을 손수 감당하고 있는 그가 영하로 떨어진 공산의 카드를 쓰려면 날선 결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의 거모처럼 가난한 자를 굶주려 버거하는 하나님의 오우지는 손길 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습니다.

장식을 누가 하나일의 모우시
고카 하는 손질에 물물이어 쓴
할 수 있따고 생각하십니까? 그
같은 우리 일종의 황제입니다.

<초등부 교사>



<아빠의 글>

나의 부활절

신 계 택

삶이 한번뿐임과 동시에 죽음도 오직 한번 뿐인 이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삶과 죽음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 숙제는 비록 나만이 가지는 바가 아닌 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는 이 삶과 죽음을 대수롭잖게 여겨 허탄한 일생을 보내는가 하면 또 누구는 어이없이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몸무게는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도 했지만, 우리 주님 역시 “은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과연 우리의 이 한 생명이야말로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갈증에서 나는 영원한 그 삶을 찾으려고 몸부림쳐 왔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 생리적 본능만을 충족시키거나 문화의 발달에서 오는 그 소산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참삶이 있지 않고, 33년의 생애를 통해 보여 주신 바 그 아꼈 없는 봉사과 희생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상에서 한가닥의 원한이나 미움이 없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시던 이 꾸밈없는 기도 속에서 참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죽음 때문에 이 그리질 수 밖에 없는 그리한 모습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 움직이는 부활의 모습임을 발견했다. (지도자양생부 부장)

<엄마의 글>

나의 부활절

입 금 전

좀 마음이 한가롭거나 몸이 불편하여 누울 때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것처럼 싱싱하던 그가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이는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겪는 일들입니다.

어떨 때는 죽음은 부의미라고 꿈쩍한 일밖에 들릴 없습니다. 맥이 빠지고 숨을 거둬 석고처럼 새하얀 그 주검. 현대 우리 일생들은 거의 그 죽음과 자신을 결부시켜 생각할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순식간에 그 죽음이 자기에게도 엄습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누구는 죽음을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만 죽음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형자는 결멸(有形者必滅)”이란 이 법칙 안에서 이는 한낱 부질없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은 부활의 그 아침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삼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음을 약속하신 보증입니다.

<어린이의 글>

나의 부활절

신 동 문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삶은 달걀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달걀은 주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나요? 생달걀은 가져다가 깨기 쉬우니 삶은 걸 주시는 것이겠지 단 달걀 속에서 병아리를 잔다는 뜻이라면 차라리 생달걀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자연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어떨 때는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요. 분명히 달걀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데도 이것이 20일쯤 암탉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속에서 비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그 문이겠습니까? 문권에 필! 필! 날아 다니는 나비도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정그러운 굴렁이었고 그 굴렁이는 한때 죽은 듯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합니다.

이같이 사람들도 죽음속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실 때 홀연히 부활하여 새 몸을 일으키라 하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늘을 훨훨 날으는 나비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미국이나 그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답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린 마음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꼭 믿고 나도 언제인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 기도는 반드시 성서 속의 대화이어야 한다. 나는 거도로 말하고 하나님은 성서로 내게 말하지 않을 때 기도는 독백이다. 공상에 흐르고 만다.

☆ 기도가 신앙의 효험이라면 전도는 신앙생활의 운동이다. 주변 줄수록 커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 교회 뉴우스 *

□ 통신강좌 사예

성경통신강좌를 이수한 성직으로
이수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2월 13일 저녁 6시에 있었다. 이
날 수상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유관철 김복희 김성희 서순경
윤종순 문정애 김복진 정여준
김일준 오배희 조봉숙 김승복

□ 춘기 성례식 거행

3월 17일 오후 7시 30분 금년보
춘기 성례식이 치러졌다. 아ולם
성당에서 3월 17일 1부, 2부 예
배식에 거행되었는데 성례식을 받
기 위한 헌당자의 자취는 다음과
같다.

학술: 교의 순서대로 8개월 이상
된 분으로 총 14세 이상,
내배: 학술 전후 8개월 이상 된
분,
일교: 유아에게 받으신 분으로
총 15세 이상
증사서: 만 2세 미만의 아기로
서 부모님의 신앙적
관리가 있는 자.

그런데 금년 성례식을 받은 사람
은 성례가 76명, 학술이 18명, 유
아에게 45명, 일교가 15명 이상라
고 한다.

□ 하늘잔치 베풀어

『미산한 자리에 베풀었다 은혜를』
이라는 구절을 거처로 지난 3월 20
일부터 25일까지 성령부흥회가 온
교회에서 있었다. 전교회가 주어진
자신 성도의 강하는 부활 요양교의
의 거룩한 목자님이었는데 1,000
명이 참가하여 이상한 은혜를 받아
어질한 사내에 새기할 수 있는 성
지이었다.

□ 부활절 축하 연합예배

안, 금, 비 부활절 연합예배가
백승당에서 지난 4월 22일 저녁 6
시에 있었다. 세원거룩교인합회가

주최하고 기독교보사의 후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라는 부
활 메시지를 본교의 담임장 김창민
목사님이 전하였는데 이 날 주님의
무릎을 닿아하기 위해 참가한 성도
는 5,000여명이나 되었다.

□ 교회부흥회 열어

세례에 세례의 임명을 받은 1, 2
부 주교 고사환을 위한 교사부흥회
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각
교회 학사를 장사로 5일간 베풀어
진 은혜의 잔치에는 일반 교우들도
많은 사람이 참가하였다. 주신 사랑 감
동하기 위해 은혜를 전하는 교사
들에게 진정 세 소망과 힘을 주게
로 부어 받은 귀한 성회가 되었다.

□ 목회상담 실시

72년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교우들을 위한 목회상담을 실
시하고 있다. 실시 중이며,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되는 이 상담
에 요일별 담당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 서구 학생들 목사
매주 화요일 동구 김지철 목사
매주 수요일 중구 정상우 목사
매주 목요일 김창민 목사

□ 전파를 통한 복음전도

세스함을 통하여 광범위하고도
빠른 시간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송전도를 본 교회 김창민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다. 김목사님
의 방송전도는 기독교중앙방송을
(HLKY) 통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 교리반 개강

장년부에서는 지난 2월 첫 주일
부터 교리공부와 학습 서적 분담을
위한 교리반을 개강하였는데 주일
날 오전 11시 50분 장년부집에서 이
주한 교도사님이 지도하고 계시다.

□ 지도자양성부 개강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 2월 첫 주일 제1기강
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32명의
수강생이 성실히 공부를 하고 있
다. 현재 제2기강도 4월 첫 주일부
터 개강하여 32명이 수강하는데 강
의는 주일 11시 50분과 월요일 오후
7시에 각각 실시되고 있다.

□ 신태호 집사 순직

장성리 구석장과 주일학교 교사
이던 신태호 집사님은 지난 2월 20
일 오전 10시 본교회에서 심혈관
암의 합병증으로 요양중이셨다. 집사님들은 본 교회 신수집과
로 신실하게 수고하신 분이시다.

□ 예배 중계 방송

오는 5월 28일 주일예배를 기독교
중앙방송국을 통하여 전국에 중
계될 예정이다. 세례전행 전파와
방송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많은 은혜를 거둘 것으로
본다.

□ 야외예배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교회 각기
분에서는 야외예배를 거행하고 있
다. 여섯 장파대는 5월 1일에 야외
예배를 가질 예정이며 여잔파대는
5월 23일에, 또 6월 6일에는 주일
학교 10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야외예배가 있을 것이다. 무한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을 즐기
는 이 거처에 해당되는 성도들과
많은 참석이 기대된다.

◆◆원고 모집◆◆

본 『중년』지에 실을 원고들
모집하고자 다음 요령에 따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1) 글 류: 시·수필·서설
만화·기타
- (2) 글 이: 200자 원고지 4
~13
- (3) 보낼 곳: 교회 사무실

□ 우리교회 수도노회에

본교회가 속해 있던 경기도노회가 3분 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새로 창립될 수도노회에 소속하게 되었다. 노회의 첫 회일은 지난 4월 25일~27일에 있었다.

□ 경노회 예정

경남부에서는 오는 5월 27일(토) 12시 금남루에서 할아저씨 할아나 오사교 주님과 이종으로 정성이 된 배움을 따라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교회를 준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위한 이 모임에 150여명 참석하리라 기대한다.

□ 청년 지도자 훈련

청년부와 대학부가 합동하여 계획하고 있는 전도가 훈련이 5월 부터 실시 되리라 한다. 청년 회원들과 대학생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도자를 훈련하여 효과적인 전도를 있게 할 예정이다.

□ 중·고등·대학부 동기 수양회 성료

2부 아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주 기 삼학을 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졌다.
중·고등부 주제: 내 삶과 나를 돌볼 때
강사:이영일 목사
기간:1월17일~20일
대학부 주제: 젊음을 그리스도에게
강사:김진택 목사
기간:2월7일~9일

□ 초등부 성가대 방송전도

지난 4월 첫주일부터 매주 오전 8시 10분~20분 H96KC 방송방송국 방송장을 기동하여 초등부 성가대 가 찬송을 통한 방송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초등부 성가대 지휘자 이호은 성성님이 지도하는 이 시간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구원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

□ 성경 암송 대회

교육 1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를

* 교회 뉴우스

열렸다.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 것이다.

유치부 3월27일 26명 참가
유년부 3월28일 42명 참가
초등부 3월28일 61명 참가

□ 겨울어린이성경학교

72년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72인파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바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

□ 1학기말 성경시험 실시

1학기를 결산하는 성경시험이 주일학교 각부에서 실시되었다. 유치부, 초등, 중등, 고등부에서는 지난 3월말과 4월초에 실시한 이 시험을 통하여 지난 3개월의 교육성과를 알지 못 것이다.

□ 교회들의 휴게일 세움

내년에 한해마다 큰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하게 될 수 있는 휴게일을 교회들에 설치하였다.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기운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도 교육장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린이회 벽신문 내

초등부 어린이회에서는 한 달에 두번씩 벽신문「어린이」를 내고 있다. 교사와 지도 사의 어린이들이 편집위원이 된 이 벽신문을 지음과 삽화까지 교의 장문 일독 해볼 수 있다.

□ 중등부 지도교역자 이취임

그를 수교하시던 중등부 최형원 전도사가 4월11일 군에 임명하였으므로 그 후임에 저우목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 남전도회 유급 전도인

지난 4월 남전도회 집행회에서는 전도인 임사님을 유급 전도인으로 시켜 전구역을 세일 노장전도를 하게 하였다.

□ 교육 2부 삼십서기 이취임

자라라라 수교하시던 집행회 임사님이 학업 관적으로 사임하신 교육 2부 삼십서기로서 새로 노장전 관장이 취임하였다. 교육 2부 (중,고 대학, 청년, 장년, 지도자 양성부)의 사무실을 전담한 노 성경의 총서기로서 개회된다.

□ 당회장 부흥회 인도

비밀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성도들이 얻기를 원하는 본 교회 당회장 김형원 목사님은 집회 들어 주 위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다시 5월이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 하신 계획이시다. 5월 1일 부터 1주간 주일학교교회(각교회 주무사 주)에서 또 5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구도동교회 (김지은 목사 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예정이다.

□ 장로 네 분 투표

본 교회에서는 5월 21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회집하고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에 출할 임원은 네분이며 다른 선출을 가진 중장년 임원은 하나일 계획 선택하길 것이다.

□ 여성성가대 1등 차지

본교회 여성성가대(지휘: 이상은 전도사)는 지난 4월 18일 경기도전도대회에서 개최한 경기전도대회에서 열매의 1등을 차지 승진의 영광을 받게되었다.

